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9월 29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투자창업과	담 당 자	• 투자유치팀장 김지연 ☎440-3291 • 담당자 김동규 ☎440-329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H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 인천센터 부평구에 개소
- 28일 개소식 갖고 본격운영 돌입 ... 120명 규모의 상담사 일자리 창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은 NH농협은행 컨택센터(콜센터) 인천센터가 부평역 북인천 우체국 건물에서 28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 행사에는 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원, 이명규 의원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인천시와 NH농협은행은 지난 7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컨택센터를 신설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120여명의 상담사를 전원 인천출신의 지역인재로 신규채용 하는 등 상호협력해 왔다.

NH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 인천센터는 예금·전자 금융 등 농협은행 대표번호 수신 일반 인바운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컨택센터는 전화나 인터넷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품정보 및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소리 없는 산업현장’으로 불리며 각광받고

있다. 도심의 빈 상가빌딩을 채워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상담원들의 소비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돼 지자체들의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이용수 인천시 투자창업과장은 “최근 컨택센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지속적인 기업 유치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2022년 현재 인천시에는 61개의 컨택센터에서 2,600여명의 상담사가 근무 중이다.

※ 관련 사진은 10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